자물통 정상문 '입' 열렸나

■ 檢, 盧 제압 '히든 카드' 관심

계좌 추적 통해 600만불 경로 찾았을 수도

'비장의 무기'를 감추고 있나?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이 확정된 뒤 브리핑에서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기 때문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28일 "노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조사가 끝난 이후 적절한 선에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전략상 회심의 카드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물증보다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했던 것이 사실이다. 뇌물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만큼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진술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도 있어 그만큼 '불확실한' 증거인 게 사실이다.

게다가 박 회장은 항상 '현금'만 거래해 물증을 찾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 이같은 수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노 전 대통령 역시 "중요한 것은 증거"라며 검찰 논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상식 논리'를 앞세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듯한 모양새였다.

그러나 검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차명계좌에 3억원이 보관돼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노 전 대통령을 제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낸 것.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전격 구속한 뒤 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서면답변서를 받자마자 노 전 대통령 소환을 전격 통보했다.

이같은 변화는 수사에 자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이 쥐고 있는 대표적인 '카드'로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진술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 관련 모든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는 핵심 인사인 만큼 정 전 비서관의 입은 사건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계좌추적 등을 통해 6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흔적을 찾았을 수도 있다.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500만 달러와 권양숙 여사가 채무 변제를 위해 받아 사용했다는 100만 달러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종착지란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건호 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건호 씨의 해외 계좌까지 '이 잡듯' 뒤졌다.

검찰은 특히 지난 17일 건호 씨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으나 사흘 뒤 외화송금 거래 내역에서 의심스러운 돈거래를 포착했다며 건호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하이라이트'에서 계좌추적 결과 등 언론에 노출된 적 없는 '의외의 패'를 보여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이해찬(왼쪽) 전 총리가 28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 김경수 비서관의 안내로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저녁 식사 시간·메뉴 등 일일이 체크

대검, 盧 소환 막바지 준비 분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이틀 남겨두고 검찰은 조사 당일 노 전 대통령이 먹을 저녁식사까지 미리 챙겨두는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검찰은 28일 노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특별조사실의 컴퓨터 장비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문재인 변호사와 노 전 대통령의 저녁식사 시점과 메뉴 등을 전화상으로 상의했다.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떠나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도착하기까지 적어도 다섯 시간이 걸리고 경호 문제로 점심을 간단히 먹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찰도 저녁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식으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 전 대통령의 상경길은 청와대 경호팀이 신경쓰고 있지만 검찰 역시 휴게소 등 동선을 파악해 가능한 한 미리 언론에 알릴 예정이다.

1995년 비자금 의혹 사건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남 합천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도 아슬아슬한 추격전이 벌어지는 등 취재 경쟁으로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대검 청사에 들어온 이후의 경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환 당일에는 경찰 병력 500~600명을 동원해 본관과 별관 등 대검 청사 전체를 둘러쌀 예정이며 노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대검 정문부터 중앙 현관까지 제지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따라 경호 인력이 배치된다.

노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게될 특별조사실이 있는 본관은 외부인의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청사 주변에서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벌이며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예비 경찰병력도 배치한다.

취재진도 미리 신청을 한 경우에만 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소환 당일 포토라인에 근접할 수 있는 취재진은 120명 정도다.

/연합뉴스

증거인멸·범죄 중대성 초점…내주 결정

■ 영장청구 여부 언제쯤?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대검 중수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다음주 중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28일 브리핑에서 "소환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토대로 수사팀이 회의를 하고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처리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며칠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30일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고 5월1일 새벽 귀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검찰은 재소환 또는 재서면조사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렇지만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내놓으면 검찰로서는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나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해야 해 수사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수사팀에 보낸 답변서에서 "100만 달러와 12억5천만원은 몰랐고, 500만 달러는 퇴임 후 알았지만 정상적인 투자금으로 생각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점에 비춰 새 주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종전 수사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면 중수부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정리해 이번 주말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주 초 임채진 검찰총장이 BBK 사건이나 '용산참사' 수사 때 그랬던 것처럼 검찰 간부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각각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수 의견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기획관은 "'검찰이 정치권 눈치를 살피다가 수사가 꼬였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불구속 수사 쪽으로 방향을 튼 사실도 없고 소환조사 이후 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 내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증거인멸 및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신껏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특별한 준비 없이 경호 협의에 주력

■ 소환 대비 盧측 표정은

검찰 소환 조사를 이틀 앞둔 28일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검찰 출두에 대비했다.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 "평소와 똑같다"며 "책도 보면서 차분하게 지내고 계신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또 "오늘도 검찰 출두와 관련해 안전한 이동에 최우선을 둔 경호대책 실무협의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은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없어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오늘은 사저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의혹이 드러날 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법적 대응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준비할 것은 많지 않다고 것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검찰 조사는 사실을 가리고 밝히는 과정"이라며 "현 단계에서 법리 검토나 연구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실제 매일 참모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것도 아니다"고 전했다.

한 측근은 노 전 대통령이 조사과정에서 검찰의 논리를 깰 비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회심의 카드는 진실과 사실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특별한 준비나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검찰 소환조사에 필요한 실무적 준비작업은 활발하게 진행됐다.

봉하마을에 파견된 청와대 경호팀은 청와대 경호처, 경찰청과 접촉하면서 당일 김해 사저에서 서울 대검찰청 청사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동 경로나 수단, 수행인원, 휴식방법 등이 주된 협의 대상이지만 경호상 이유를 들어 자세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이와 함께 김 비서관은 출두 당일 노 전 대통령의 성명 발표 가능성에 대해 "당장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성명 발표 없이) 그냥 가시지 않겠느냐"며 부정적인 뉘앙스로 풍겼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금원 회장 구속 기소

정치자금법 혐의 제외

대전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28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04년 이후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삿돈 305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벌금과 추징금 등을 회삿돈으로 내게 해 회사에 36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한편 세금 16억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강 회장이 2007년 9월 윤모(40) 전 행정관 등을 통해 안희정(45)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8천만원을 건넸다는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기소 사실에서 제외했다.

윤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때문으로 보인다. 뇌종양으로 투병중인 강 회장은 담당 재판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홈페이지 www.ins13.kr 반갑다! 친구야
• 일 시 : 2009년 5월 16일 토요일 저녁 6시 • 참석대상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생
• 장 소 : 광주 인성고 모교 실내체육관 옛 20년전 은사님 광주 인성고 총동문회 임원 이사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장
강천규 TEL : 011-614-0898 최성훈 TEL : 011-611-0442 송상훈 TEL : 010-7755-2753
※ 졸업 20주년 행사 추진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람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알림
홈페이지 www.inseong.or.kr
• 일 시 : 2009년 5월 17일 일요일 오전 9시 • 장 소 : 광주 인성고 모교 운동장
• 1부행사 : 족구, 배구, 축구, 줄다리기, 400m계주 • 2부행사 : 초청가수공연, 각기수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 특별행사 : 가족대항게임, 행운권추첨, 어린이미술사생대회
※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장 : 박 형 욱 ※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 사무실 연락처062)603-3833

= 저마다 합격의 예쁜 꿈들, 無等과 함께하면, "꼭"이뤄집니다!! =
7·9級 공무원 전직렬
30 40 늦깍이 주부반모집 실한 쇄지 행교세관감법검마철교보보간복소기 정행무세사원찰약공정호건호지방술 향후 5년간 소방인력 8395명을 충원한다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 인 원 {국가직 9급 2320명, 7급 600여명 공채 / 지방직 7·9급 일반직 약4000여명 공채
• 시험일: 지방직 9급 5월23일, 7급 9월26일 시행 / 서울7·9급 행정7월19일, 기술직렬 8월17일예정
개 강 5월 1일 (주·야 종합반 모집) (현재상담접수중)
본 학원 강의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세법, 회계학, 형사법, 민사법, 헌법, 경제학 교정학, 복지학, 소방학·법, 공중보건학, 상식, 기타
= 주간반 2개월, 야간반 3개월 완성 =
=최선을 다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 =
◦부대시설◦ • 정독실300여석 • 구내식당 • 인터넷정보실 • 지하주차장 • 맞춤식 학원증 최신시설 • 매월말 토요일 정착 모의고사 실시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전의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남·여 순경 공채 경찰
개강 5월 1일(첫 진도 첫 페이지)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합격시스템
6개월과정 • 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 •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교재 15% D/C
1년과정 • 2개월 완성 6회 반복학습 • 영어 기본이 안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50% D/C 교재 15% D/C
주저하지말고 1년 수강료 96만 도전하면 합격의 지름길!
합격배출1위 교수진
경찰학 오 탄 • 신 경향 경찰학 개론 직강 • 남부 경찰학원 전임 • 광주 메가 경찰 학원 전임
수사 차주온 • 강의경력 22년 • 광주 순천 메인 전임 • 광주 메가 경찰 학원 전임
영어 이방희 • 경찰 영어 70% 합격좌우 • 꼭꼭 찍어 쉽게 강의 • 강의경력 15년
형법 허문표 • FIRST최강 형법 직강 • 노량진 한국경찰 전임 • 광주 메가 학원 전임
형소법 김현중 • 사시 1차 3회 합격 • 신림동 법원 경찰수강대상 10년 강의 • 형소법출제경향이 확 바뀌고있다.
경찰 전문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226-5050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공인중개사 광주 박문각 공인중개사전문학원
직장인, 주부, 학생을 위한 국비환급 100%
▶ 합격률 100% 책임 지도 관리 ▶ 출석부 관리, 숙제, 쪽지 시험 시행
▶ 박문각 교재, 동영상30%DC ▶ 기출문제 풀이(수요일:민법, 목요일:개론, 오후 3시~5시)
본원만의 합격비법전수
개강 5월1일(금)
"전국 최다, 최고의 합격생 배출한 서울 박문각 합격 시스템(실강의)으로 운영
☎529-8838 ■ 위치:운암동 광암고가 옆 삼애신협 2층
■ BUS:37번, 65번, 89번, 98번 ■ BUS:운암고가 입구(제2광천교) 26번, 38번, 47번, 64번, 51번 ■ BUS:서강정보대 입구 18번, 58번, 63번
상무지구에서 자동차로 5분거리